

# 1989年度 春季學術大會

主題：社會變遷과 家庭

日時：1989年 4月 29日(土)  
場所：서울大學校 教授會館

大韓家政學會

# 순서

- 
- 09 : 30 등 록
- 10 : 20 국민의례                      사회 : 이 인 자 총무(건국대)
- 10 : 25 개회인사
- 10 : 30 主題 講演  
「社會變遷과 家庭」
- 現代社會와 家庭—이동원 교수(이화여대)
  - 傳統社會와 家庭—최근덕 교수(성균관대)
- 12 : 30 점 심
- 14 : 00 發 表                      사회 : 서 병 숙 부회장(한양대)
- 夫婦 問題—유영주 교수(경희대)
  - 子女 問題—이 영 교수(연세대)
- 14 : 50 질의 및 응답
- 15 : 00 휴 식
- 15 : 20 • 老人 問題—김태현 교수(성신여대)  
• 家事勞動 問題—이정우 교수(숙명여대)
- 16 : 10 질의 및 응답
- 16 : 20 광 고
- 16 : 30 폐 회
-

# 현대사회와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 등 원 교수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현대사회의 가족연구에 대한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 뒤 서구 가족학자가 제시한 가족변화의 이념형적 구성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한국가족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주로 가족의 중심적 관계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형태는 하나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이여야만 하는가?

또한 가족은 존속할 것인가 파괴 소멸될 것인가? 가족의 소멸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실제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가족에 대한 논의도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19세기 중엽까지도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른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아윈의 사회적 진화론이 가족연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어서 스펜서에 의해 결혼과 가족의 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고, 이어서 모르간, 엥겔스 등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1890년대에서 1920년 사이에는 사회문제와 개혁에 관심을 가진 시기로 가족연구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맥을 함께하고 20년대에서 50년대에 걸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한 과학적 대상으로서 가족을 연구하려는 동향을 보여주었고, 50년대이후에 와서는 가족이론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0년대에 와서는 구체적인 가족연구를 위한 개념적 준거틀이 만들어지고,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가족연구의 이론구성에 본격적인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적 차원에서 출발했던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이 가족연구에 끼친 공로는 매우 크다.

가족을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자 했으며, 가족연구에 대한 상호작용과 가족내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가족연구의 학문화에 많은 공헌을 했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개혁의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이에 반해서 엥겔스와 맑스의 이론에 기초한 급진주의적 입장에서는 학자들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를 달리한다는 유물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 이래 여러 분파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다가 프랑크후르트학파에 의하여 가족은 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회적 제도이자 이데올로기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최근에 와서는 현재의 서구 가족형태는 19세기의 부르주아의 계급적 특징의 결과라는 가설 아래서 계급, 인종 등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가족형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동향을 지니고 있다.

구조기능주의자들이 가족을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내의 인간관계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서 급진주의적 사회학자들은 가족을 거시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연구 역시 매우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49년 김두현의 가족연구를 효시로 60년대 이후에 가족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가족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가족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은 그 어느때보다도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가족은 멀지않은 장래에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은 다른 사회제도와 격리되어 있고 가족의 고유기능의 상실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가족이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됨으로써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론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반해서 낙관론자들은 가족기능의 상실이라고 보다는 가족기능의 확대와 분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족기능은 상실되어 가는 반면에 오히려 심화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즉, 사회가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관으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 기능상실로 가족의 소멸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Burgess와 Locke가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의 변화적 상황을 제시한점은 그 당시로서는 전제정치에 대한 민주정치의 대치만큼이나 큰 사회적 변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우애성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이데올로기로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Hauemann은 우애적 결혼의 4 가지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동지적 관계(Comradeship),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 개인성취적 관계(Individual Identity) 및 상호성취적 관계(Mutual Self-fulfillment)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제약에 따라, 가족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적 가족은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애적 가족에서는 상호간의 사랑과 우정에 기

반을 둔 평등한 관계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중요시하게 된다. 즉, 결혼생활을 통해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Otto는 현대의 우애적 결혼이란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모험을 하면서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흥미있는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실제로 현재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 여성취업율의 증가, 혼외 성교, 하위문화의 성행, 동성연애의 증가 등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도덕 파괴의 전조이며, 가족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해방의 전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은 이혼을 결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급진주의자들은 부부 혹은 가족의 공동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안스런 결혼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재창조하는 것으로서 재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와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가족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념형을 보기로 한다.

Adams는 가족체계의 특성을 가족의 형성(배우자 선택), 사회화, 역할구조, 가족과 사회간의 제도적 결합 및 개인과 가족의 결합 등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 측면에서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중매혼에서 자유혼으로 변화하며 사회화는 가족 정체감을 중요시하는 가족 및 친족집단의 통제에서 매세대간의 문화가 재정의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부간의 역할은 전통에 의한 남녀 역할의 고정된 문화적 유형에서 역할분화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가족과 사회간의 제도적 결속도 가족과 사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합치되는 상황에서 분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완전분화사회가 되며 친족집단이 기초적인 단위로의 역할에서 개인중심으로 변

확해 간다는 이념적 방향을 여러 연구가들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의 형성과정을 보면 부모에 의한 배우자의 일방적 선택에서 제한된 선택의 단계를 거쳐서 개방선택형에 이르게 되고 미래엔 완전자유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제한된 선택의 단계에서는 혼인에 대한 금기가 그 전단계보다 다소 약화되기는 하지만 인종, 종교, 거주지별로 배우자 선택의 범위가 제한되며 배우자를 선택할때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다음 개방선택형의 단계에서는 한 사회내에 거주하는 이성이라면 일단 배우자로 선택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지닌 상태를 말하며 서로 만족하지 못할경우 그 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결혼이나 이혼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로서 완전 자유선택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법제도상의 결혼제도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회화의 측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느린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가족이나 친족집단내에서 충분히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족이외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대행자가 새롭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가족정체감에서 벗어나서 가족이외의 사회성원들과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정체감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미래사회는 매세대마다 문화를 재정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가족은 완전히 사회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가족과 사회와의 제도적 결합의 변화를 보면 가족,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수행되는 미분화된 사회에서 어느정도 분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가족은 일차집단의 대표적 유형이 되며 완전분화된 사회에서는 기능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가족은 필요없는 제도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Durkheim의 논의에서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Durkheim은 사회는 기계적 결속에서 유기적 결속으로 변모해가는 반면에 가족, 친

족단위는 유기적 결속에서 기계적 결속으로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기계적 결속에 의한 사회는 기준규범에 따라서 사회가 용납하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서 사회가 인정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 또한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일생동안 가족의 울타리안에서 생활하며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도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주체이다. 즉, 가족이 곧 직업집단이다.

그러나, 유기체적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단위는 자급자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예전에 가족이 담당했던 역할의 폭도 줄어들뿐 아니라 세대간의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가족의 영향권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Durkheim은 오랫동안 가족은 사회적 단위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가족은 이제 자율성을 지닌 채 거대한 사회주변에 놓여있던 조그마한 소사회의 성격을 벗어나 점차 사회적 유기체라는 조직안으로 관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가족은 점차 전문직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변모되어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여타의 사회적 단위와 분화된 경제체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즉,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은 경제적 기능은 거의 담당하지 않은채 교육, 휴식, 보호의 기능은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며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족의 특성은 가족내 분업이 불명확해지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적 결속이나 행위규범이 가족을 구성하는 원인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감정적 결속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은 분업화, 비인간화 되는 사회에서 유일한 피난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족은 전인격적 반응을 하게되고 상호의 논의 상대가 되고, 가족관계 자체가 수단에서 목적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가족은 친밀성, 우애성 및 기계적 결속이라는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

현대산업사회는 합리주의와 능률위주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비인간성, 대중성, 익명성 등의 특성을 지니며 이는 인간의 기계에의 예속, 감정적 유대보다는 이익에 의해 뭉쳐지는 이익집단의 출현 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는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충족을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대신 정서적 기능은 가족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로부터 우애로의 변화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결혼은 “본질적으로 권위나 복종에 기반을 둔 권력 구조”인 반면 새로운 결혼은 “사랑과 친밀함을 기초로 하여 창조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평등에 대한 이념이 산업화를 동반하면서 부부중심가족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부부중심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실세계에 적응된다고 볼 수도 있다. 부부중심가족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로운 배우자선택의 권리 및 부부간의 애정적 관계를 중시하고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낡은 전통을 깨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감정적 혁명은 산업혁명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유형의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우애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되는 부부간의 지나친 욕구충족의 기대는 자칫하면 가족관계에서도 긴장감을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긴장을 잘 해소시키지 못할때 가정의 질적문제와 불안정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따라서 현대 기술사회의 체제 자체가 심리적으로 개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부중심가족은 감정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심리적인 위기감을 경험하기 쉽다. 즉, 현대사회는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짐을 감

당하기에는 가족의 규모가 너무 작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서 맺어진 소수의 모임에 불과한 가족집단으로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데서 현대가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새롭게 변화된 가족의 기능이 적절히 충족되면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질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가족의 질과 함께 안정성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가족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요인은 낮은 질과 상호관련성이 있겠으나, 질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정성이 높은것이 아니고 질이 높은 경우에도 안정성은 낮아질 수 있다.

결혼의 불안정성은 이혼, 별거, 유기, 지속적인 갈등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결혼의 질은 결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등의 구조적인 해체가 아닌 내면적인 심리상태가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는 잠재적인 불안정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가족도 가족형태, 규모와 주기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핵가족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가족화의 경향과 가족 주기면에서도 탈양육기 부부만의 빈둥우리단계가 새로 나타나는 점 등 선진국 가족유형에 근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평등한 입장에서 우애적 부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인 내적구조의 핵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이상적 의미에서의 부부중심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구조상의 소가족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와 규범간의 변화속도의 차이 및 불일치에서 가족의 질적 문제 및 불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1960년에서 85년사이에 5, 6명의 가족규모가 4, 2명으로 감소되고 3세대 이상 가족은 1960년대 초에는 29%이었으나 1985년에는 16%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1~2세대 가족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혼자로 구성된 미완성가족은 8.1%이며 이들 가족의 평균가족원수는 1.8명이다. 또 단독노인으로 구성된 해체기 가족은 3.4%이며 그들 가족원수도 1.1명이다.

가족의 원형인 부부만의 가족은 3.9%이며 평균가구원수는 2.1명인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출산기의 확장기 가족은 전체가구의 1/2로 평균가구원수가 4.2명으로 보편성을 보인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후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소위 1세대 축소가족은 4%이고 이들의 평균가족수는 1.8명이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족도 14%나 된다.

가족의 크기 및 유형의 변화와 함께 가족주기\*1도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결혼해서 첫자녀를 낳을때까지의 기간인 “가족형성기 및 자녀출산기인 “가족확장기”는 20년동안에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자녀의 출생부터 첫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해 나갈때까지의 완성된 확장기는 증가되고 있다.

첫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해 나갈때부터 마지막 자녀가 분가해 나갈때까지의 축소기는 감소되고 반면에 자녀들이 결혼후 분가해 나갈때부터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인 “완전된 축소기”는 -4.9년에서 8.7년으로 13.6년이 증가되고 있다.

이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탈양육기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주기의 변화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탈양육기 부부만이 함께 생활하는 단계가 새로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가족해체를 맞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를 출가시킨후 부부 두사람만이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부부 두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으로써 재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긴장이 생기며 때로는 이러한 긴장은 가족의 안정성과도 직결되기도 한다.

(★1) 1925~1929년 출생부인과 1945~1949년 출생부인간의 가족주기를 비교한 1982년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이와같이 60년대 이후 가족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와 함께 결혼관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혼전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허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혼전 성관계가 없을 것과 부모의 승낙이라는 단서가 전제된다. 따라서 아직은 자유로운 교제를 무조건 허용하는 부모는 극히 드물어서 이성교제에 대한 무조건 찬성은 단 7.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은 반드시 해야되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던 보편혼의 태도에도 다소의 변화를 보인다. 결혼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지배적이나 결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려는 경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도 전통적인 중매혼에서 자유교제형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부계혈연계승에 대한 태도도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적인 이혼불허의 태도에서 다소 허용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으며 재혼을 수용하는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직장생활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뚜렷해서 가정적 역할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태도는 여전히 뚜렷하다.

해방이후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흡수, 계속된 경제적 결핍상황 및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고속사회화, 인구과잉현상과 입시과열현상 및 부동산투기현상 등의 비정상적인 사회현상, 또한 근원적으로 분단사회가 갖고 있는 집합적 불안정성 등의 가족외적 상황이 가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의 독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상징체계 및 기타 가족외적 환경과의 관련성도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여러 연구결과들에 나타난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담스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변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우리 문화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가족연구는 이러한 보편적 변화과정과 함께 우리 가족의 독특성에 대한

연구 모색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대사회에서 부부중심가족의 이데올로기가 부부간의 평등성에 기초한 우애적 관계로 특장지위짐에도 불구하고, 핵가족의 구조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족은 여전히 제도적 관계의 틀속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의 문화지체현상은 한국가족에서 결혼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잠재적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는 가설이 한 연구결과(이동원, 1986)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중류층가족의 결혼의 질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고 분포도도 넓어서 대상자간의 질의 점수차이도 매우 크다. 또한 잠재적 불안정성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결혼의 질과 잠재적 불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은 네 유형으로 나누어 본 결과, 결혼의 질이 높고 잠재적 불안정성도 낮은 가장 바람직한 집단과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결혼의 질이 낮고 잠재적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 즉 위기경향적인 상황에 있는 가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서 양분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지역이 서울에 국한되고 표집의 크기가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서구사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구조적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낮은 질과 잠재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가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않을까 한다.

속이 텅빈 빈조개껍질가족은 어떠한 조그만 위기에도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결혼의 질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부부중심가족의 이데올로기인 우애성과 이와는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해오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다.

연령이 높은 층 및 남자 등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비교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일부종사, 조강지처, 이혼불허 등)을 통해서 결혼의 높은 질을 유

지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층, 연애혼을 했거나 주관적 계층이 높은 층에서는 부부간의 우애성을 통해서 각각 결혼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가족가치관이 비교적 전통적이면서 우애성이 높은 대상자들은 결혼의 높은 질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이고 우애성이 낮은 대상자들은 결혼의 질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요약하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과 잠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핵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우애성이며, 점차적으로 가족가치관에서 우애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가치관이 점차적으로 근대화되어 간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족의 질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족형태의 변화에 적합성을 갖는 우애성을 기초한 평등한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하리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내면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구조적 해체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가족의 불안정성은 사회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면서 처음의 가족의 논의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과연 가족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또한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있는 것일까? 행복한 가족이나 성공적 결혼 등의 개념 자체가 신화라고 말하고 있다.

가족은 이질적 존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며 또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가족은 황적, 종적변화를 경험하는 동적 존재이다.

가족은 사회와 개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양면적 기능을 담당할 때만이 존재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과거처럼 가족이 추상적 존재로서의 절대적인 권위와 복종에 기반을 둔 권력구조를 지닌채 개인의 삶의 의미를 말살시키거나 희생시키게 된다면 가족은 존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때 가족의 존속



가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효에 바탕한 가족주의와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함께 수용함으로써 사회변화 과정에서 오는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적 가족주의인 집합주의적 가치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개인적 가치를 어떻게 융해시키는가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부부간의 관계가 극히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관계의 당사자인 개개인

의 행복의 증진을 위한 단지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이라면 이러한 부부관계는 각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개인주의 내지는 가족이기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복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가족문제는 관계 그 자체를 떠날 개인의 행복만을 운위하는 것이 아닌 관계 그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이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 傳統社會와 家庭

成均館大學校 儒學科

崔 根 德 教授

## I. 問題提起

傳統社會에 있어서 家庭이란 무엇인가. 우선 定義부터 알아본다. 家庭이라는 낱말은 사실 전통사회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① 가족이 있는 곳 ② 집의 뜰이라는 뜻으로 간혹 사용되었을 뿐이다. 現代의 意味의 家庭은 <家>로 表現되었다. 家는 무엇인가.

첫째로 夫婦를 단위로 한 團體이다. 儒敎의 古典인 周禮 <地官·小司徒>에 「上地를 주는 집은 가족이 7人이어야 한다」(上地家七人)라고 했고 그 注에 「지아버가 있고 지어미가 있는 그런 뒤에야 家가 된다」(有夫有婦然後爲家)고 했다.

둘째로 家統을 뜻했다. 「家란 代를 잇는다는 말이다」(承世之辭, 詩經 周頌 桓 疏)했다.

세째로 一族 즉 家門을 뜻하는 수가 많았다. 「家란 一門의 안이다」(家謂 一門之內) (詩經 召南·桃夭 注)한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家는 姓을 뜻하는 等 넓은 의미로도 많이 쓰였다.

本小論에서 便宜上 傳統社會를 <朝鮮時代>社會로 限定시켜 놓고 본다면 위에 든 家의 세가지 뜻은 고스란히 適用이 되리라 믿는다. 특히 儒敎의 儒值觀이 性別·階層에 관계없이 社會 一般의 通念으로 定着하기 시작한 朝鮮朝 中期以後에 있어서는 家庭은 바로 이 세가지를 遂行하는 곳이었다.

첫째로 夫婦를 單位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婚姻을 아주 重要視했다. 姓氏, 門地, 操行을 따지고 六禮를 갖추는 까다로운 儀式 節次를 밟았다.

夫婦를 <아이 낳는 기본단위> (生民之始)로 생각한 것은 부부를 中心으로 家族이 形成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모든 福의 根源」(萬福之源) 이라고 한 것은 부부가 가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흔히 조선시대의 가정을 家父長制라고 해서 夫婦란 概念은 그 속에 埋沒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形式(形態)을 강조한 나머지 內容(實體)을 看過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가정 내에서 가장 어른(주로 男子, 때로는 女子일 경우도 있다. 홀로 된 曾祖母, 祖母 혹은 宗婦가 중요한 家門事에 決定權을 行使했고 그렇지 않다치더라도 稟한 後에 최종 決定을 했다. 王家에서의 大妃 攝政도 脈絡이 같다) 되는 분의 지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가족의 中心은 어디까지나 夫婦 單位이고 부부에 의해 가정이 成立된다는 의식은 確固했다.

둘째로 家統을 뜻한 결과, 祖上崇拜思想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고 子孫에 있어서도 男子를 選好하는 생각이 확고했다. 가정이란 부부 一代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祖上에서 이어내려왔고 다시 오래도록 자손에 의해 繼承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세째, 가정은 同姓 家門의 한 單位라는 觀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血族과의 共存共營을 前提로 가정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營爲했다. 家門은 또 親族뿐만 아니라 婚姻에 依해 생겨나는 姻戚으로 擴大되어 갔다.

## II. 順機能과 逆機能

이상에 본 세가지 側面的 意識構造는 그대로 倫理觀으로 表出이 되었고 生活慣習으로 定着이 되었다. 이떠한 思考도 對社會의인 投射에 있어서는 順機能과 逆機能을 隨伴하는 법이지만,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家庭觀도 肯定的인 面이 있는가 하면

否定的인 弊風을 빚어낸 部分도 없지 않았다.

첫째, 夫婦가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은 必然的으로 婚姻을 重視함과 동시에 女性의 地位에 대해 細心한 配慮를 하게 되었다. 이는 男性이 代를 이어가는 主體이고, 社會活動을 獨占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女性의 地位가 格下되어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둔 配慮인지도 모른다.

① 女性이 婚姻에 의해 姓을 拋棄하지 않았다. 東西를 莫論하고 대부분의 민족은 婚姻을 하면 女性은 姓이나 이름에 변동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는 그러한 習俗이 없다. 女性이 지니고 있는 背景·血統(門閥)을 아주 尊重했고 그에 相應한 敬意와 矜持를 가짐으로서 자기 家庭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女性의 出身地를 자기 家庭의 對外的 稱號로 삼음으로서 더욱 露骨化된다. 女性은 시집 오면서 宅號를 가져옴으로서 혼인에 의해 포기한 親庭쪽의 권리를 補償받는다.

② 남편이 官界에 진출해 出世를 하면 아내도 그에 相應한 權威를 누린다. 朝鮮時代 官爵의 品階는 18等級이 있었는데 文武官의 아내만이 任命되는 婦人의 官爵은 10等級이었다. 貞敬夫人(正·從一品), 貞夫人(正·從二品), 淑夫人(正三品堂上官), 淑人(正·從三品), 令人(正·從四品), 恭人(正·從五品), 宜人(正·從六品), 安人(正·從七品), 端人(正·從八品), 孺人(正·從九品)이 그것으로, 例를들면 남편이 正一品(大匡輔國崇祿大夫), 從一品(崇祿大夫)에 해당되는 벼슬을 하면 아내는 貞敬夫人의 職帖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禮遇를 누렸다. 가정의 두 기둥인 夫婦에 대해 똑같은 榮光을 賦與해서 家格을 높여준 것이다.

③ 家庭의 經濟權이 대개의 경우 女性(아내)에게 있었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農耕에 依存 하는 農業經濟體制였기 때문에 穀物, 綿布가 通貨를 代身하고 있었고 이의 管理는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쌀독을 지배하는 자가 가정경제를 지배했던 것이다. 집안 庫間의 모든 열쇠를 主婦가 간직했고 열쇠의 移讓은 곧 가정경제권(살림하는 권리)의 이양이었다. 이러한 財產權上的 優位乃至 同等은 遺産相續에도 反映이 되어 있었다. 古文書중 分財記를 분석해 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철저한 子

女均分相續制인 것이다. 中國은 衆子均分 相續制, 日本은 長子獨占相續制이다.

④ 母權이 확립되어 있었다. 子女에 대해 夫婦는 同等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子女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정안에서 女性은 아내로서의 권리보다는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더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가정에서의 女性의 地位·役割에 대한 肯定的인 評價이고 그늘진 側面도 없지 않다.

①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不拘하고 男尊女卑의 관념이 強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家統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도 易의 陰陽思想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다. 陰陽思想에서는 陽尊陰卑라 해서 陽은 높고 陰은 낮다고 규정하고 있고 陽은 動的이고 陰은 靜的이라 해서 女性의 活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② 따라서 出嫁外人, 女必從夫라 해서,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三從之義란 儒敎 古典인 儀禮(喪服傳)大戴禮(本命)篇에 있는 말로 「婦人은 세 따르는 의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決定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시집가서는 지아비의 뜻에 따르며 지아비가 죽고 나면 아들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儒敎 古典을 익히기 시작한 三國時代에도 上層階級에 있었던 것 같지만(例: 三國史記卷第 43 列傳第 3 金庾信傳) 보편화된 것은 儒敎가 硬塞化되기 시작한 朝鮮中期 以後이다.

③ 朝鮮朝 後期로 접어들면서 儒敎가 본래의 思想에서 逸脫해 官學化되고 硬塞化되면서 이른바 七出三不去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大戴禮에 있는 말로(중국에서는 唐代부터 法律에 규정되었음) 無子去(아들을 낳지 못하면 버린다), 不事舅姑去(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버린다), 淫佚去(부정한 짓을 하면 버린다), 妬忌去(질투가 많으면 버린다) 惡疾去(나쁜 병이 있으면 버린다), 口舌去(말이 많으면 버린다), 盜竊去(도적질 버릇이 있으면 버린다) 일곱가지인데 家門爲主, 父母爲主, 남편爲主로 아내와 離婚할 수 있는 條件이다. 그러나 三不去, 즉 이혼할 수 없는 세가지 장치가 있어 사

실상 七去란 그렇게 보편화 되지 못했다. 三不去는 經持舅 姑之喪(부모의 三年喪을 함께 치른 사이), 娶時賤後貴(장가들때 가난하거나 천했다가 뒤에 富貴하게 된 경우), 有所娶 無所歸(버리던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다.

④ 太宗때 제정한 庶薛子禁錮法(서자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仕籍·儒籍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再嫁禁止로 발전했고 烈女不更二夫의 너울을 쓰게 했으며 이로 인해 어두운 구름에 휩싸인 家庭이 늘어나고 슬한 哀話, 悲歌를 낳았다.

둘째로 家庭이 夫婦一代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로 祖上이 내려 준 전통을 잇고 아래로 무수한 子孫에게 계승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은 家族構成員 사이에 歷史意識을 심어주고 굳건한 紐帶關係를 凝結시켜 주었다.

① 祖上崇拜思想으로 자기의 뿌리(根本)을 알고 尊重할 줄 알게 되었다. 사람은 單獨者로 이 世上에 오는 것이 아니라 無數한 고리(環)의 하나로 보며, 슬한 조상이 제냈기에 자기 一身이 오늘 存在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② 따라서 自己로부터 다시 무수한 子孫이 이어져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몸가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自覺이 생긴다.

③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家道·家風이 서 있어 家庭教育·人格陶冶가 저절로 되고 가족사이의 愛情과 孝·悌의 倫理가 돈독해 진다.

이러한 良俗의 形成과 展開에 附隨해서 弊風도 생겨났다.

① 家統을 잇고 家門을 興盛케 하기 위해 多數의 子孫을 希求하게 되고 後嗣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無理를 犯했다. 無子去도 그중의 하나이고 副室·小室 등 蓄妾制度도 마찬가지며, 早婚風習도 이어서 비롯되었다.

② 家統意識을 背景으로 家父長的 權威主義가 胚胎되어 마침내 家族間的 和合을 圖式化시켰다.

③ 祖上崇拜思想이 虛禮虛飾으로 흐르면서 繁文縟禮를 불렀다.

세째, 家庭을 곧 家門으로 連結지우는 생각은 儒敎의 親親而 愛民(가까운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을 확충해 가는것) 思想, 佛敎의 因緣思想과 結合해서 美風을 이룩해 온 것

이 사실이다.

① 家庭은 家門의 一部分이기 때문에 모든 法度와 名譽도 직접 連繫가 되었으며 따라서 共同體意識이 強했고 家庭破綻이 있을 수 없었다.

② 祖上을 같이하는 同族 家門끼리는 禮儀凡節을 함께 하고 相扶相助하는 美風이 있어 家族사이의 和睦이 저절로 이뤄지고 子女의 가정교육이 전통에 따라 自然스럽게 이루어졌다.

③ 儒敎의 사랑을 段階的으로 베푸는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우리 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받들어 남의 늙은이에게 미치고 우리집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 남의 어린이에게 미친다)는 仁의 精神에 따라 家庭>家門>社會國家(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擴散되어 갔으며 사회국가 가는 가정의 延長이라 생각했다. 鄉約 네 綱目을 보면 德業相勸(좋은 행실을 서로 권장한다), 過失相規(허물은 서로 바로잡아 준다), 禮俗相交(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서로 사귄다), 患難相恤(재난이나 어려움에 있어서 서로 도와준다)로서 가정에서의 德目이 바로 마을을 醇化시키는 主精神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美風良俗에도 不拘하고 逆機能도 있었다.

① 가문을 重視한 나머지 가정이 그 속에 埋沒되었으며 가문을 위해 가족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② 가정·가문의 背景과 名譽·團結을 강조해 門閥意識을 부추겼고 다른 門地에 대한 排他性이 생겨났다.

### Ⅲ. 現代的 照明

전통사회에서의 가정의 특징을 말할때, 대개의 경우 家父長制와 大家族主義를 든다. 그리고는 上帝下服관계로 因한 家族間的 葛藤과 男尊女卑사상에서 起因한 女性地位의 劣惡을 弊端으로 擧論하는 수가 많다. 전혀 틀린 見解는 아니다.

전통사회에서의 가정이 家父長制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어른」이 있고 그 어른이 가정의 大小事를 결정하고 가족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것을 말한다. 이것은 나이 많은 長老가 터득하고 있는 세상일에 대한 蘊蓄(經驗)을 존중하는 面과 直系尊屬에게 바치는 敬意가 合成된

결과이며 어떤 小集團에도 位階秩序가 있어야 하고 지휘 감독자가 있어야 하며 對外的으로 내세우는 代表者가 있어야 한다는 人類社會의 전통적 通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勿論 大家族主義와도 相關이 있다. 祖父母(曾祖父母, 高祖父母까지도 때로는 包含이 된다) 膝下の 모든 同系子孫이 한 家庭을 이뤄서 生活하려면 어차피 家父長은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 家父長制는 封建時代의 遺物로, 마치 이르러진 家庭像의 元兇인것처럼 認識되고 있다. 傳統에 대한 分別없는 唾棄와 拜西主義에 起因하는 現象일 것이다.

사실, 전통사회에서의 家父長制에도 短點과 長點이 共存해 있다. 앞에서도 大略 論議가 되었지만 한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가 지금 常識이나 傳聞에 의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家父長」의 權威나 獨裁가 그토록 酷甚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家間事에 있어서는 언제나 主婦(祭祀에서 主婦가 亞獻을 한다는 것도 注目해야 한다)는 相議對象이며 成年이 된 아들의 意見이 상당한 比重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家格을 차리는 집안에서는 「男不言內女不言外」(남자는 안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外言不入於內內言不出於外」(밖의 말은 문지방을 넘어들어가가지 않고 안의 말은 문지방을 넘어나오지 않는다). (禮記 曲禮上第一)는 규율이 있어 집안에서 男女의 役割이 정해져 있었고 서로 尊重을 했다. (上古以來 우리의 婚俗이 招婿婚이었다는 사실도 勘案해야 한다)

大家族主義에 대해서는 古代로부터 우리 民族이 農耕生活를 營爲했기 때문에 不可避 했을 것이다. 勞動力의 確保도 문제지만 넉넉치 못한 食糧의 効果적인 保存이나 分配로 勘案했을 것이다. 아뉘든 生存과 연결이 돼서 정착한 制度일 것이며 儒敎의인 「家」의 思想은 그 뒤에 受容했거나 形成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大家族主義의 否定的인 面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듯이 核家族制의 短點도 우리는 이제 알기 시작했다. 大家族主義는 우리 時代의 大部分 世代가 經驗을 했고 核家族制는 지금 바야흐로 移行期의

現實을 맞보고 있는 것이다.

筆者는 지금 우리 社會에서 核家族이라는 것이 엄밀한 意味에서의 核家族制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夫婦 단들이 가정을 이뤄 子女를 기르고 있지만 사실은 父母(혹은 祖父母도 包含) 兄弟들과 자주 合流하며 때로는 定期的으로 訪問·問候를 하고 家재도구나 飲食까지도 有無相通을 한다. 祭祀를 모시는 가정은 거의 정기적으로 친족이 모여 祖上을 追慕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和음을 다진다. 都·農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子女들이 放學을 利用해 長期間 交換放問을 한다. 有無相通을 위해 집안어른이 자주 往來하며 消息(情報)을 주고 받고 은연중 姻戚黨간의 情誼를 되새긴다. 子女들이 그 분위기를 感得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居住形式만 核家族일뿐 實際 內容은 大家族主義다. 사실상 家間事에 대해 議論相對가 되어주고 決斷을 내려 安心시켜 주는 「어른」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現代는 歷史의 脈絡으로 보면 過渡의 轉換期에 속한다. 社會의 變動에 따라 家庭도 變化를 겪어야 하는 길목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일 수밖에 없다. 전혀 豫測을 不許하는 科學文明을 겪고 있고 아주 異質의인 西歐文化를 性急하게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敎訓은 어느 한 民族이 異民族의 異質文化를 急激하게 받아들일면서 自民族의 固有文化를 攙그리 버렸을 때 어떤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을 克明하게 보여 주는 例가 없지 않다. 傳統(古有)文化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文化를 받아들여 調和를 이룬다면 그건 아주 理想的인 例가 될 것이다. 실제로 成功을 거뒀 世界의 一等文化民族으로 浮上한 예는 許多하다. (크게 보면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도 마찬가지고 대개의 高級文化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성격을 띤다)

「家」가 內包하고 있는 세가지 意味를 吟味해서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정착된 肯定的인 面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時急한 문제로 提起되어야 할 것이며, 核家族制가 現代産業社會에서는 불가피하다면 內實에 있어서는 大家族制의 順機能을 살리는 努力도 傾注해야 할 것이다.

# 夫 婦 問 題

慶熙大學校 家庭管理學科

劉 永 洙 教授

夫婦問題에 대한 研究는 곧 家族問題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도 「家」의 中心人物은 夫婦였고, 더욱이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家族의 形態가 점차로 夫婦家族化(6.7%, 1985)되어 가고 있고, 3세대 가족은(14.4%, 1985) 감소되고 있으며, 家族員數도(4.2人, 1985) 점차 감소되어 小人數 家族化되어감을 볼 때 바야흐로 現代家族은 적어도 外形上으로는 夫婦中心的 家族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家庭相談所, 家庭 法律相談所, 생명의 전화등을 통하여 가정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상담사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전체의 1/3) 부부문제임을 볼 때 현재의 가족 문제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고찰, 복지기관 여성단체등의 자료와 실태조사등을 통한 결과들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저 한다.

## I. 문헌고찰을 통해 본 부부문제

부부문제에 대한 문헌은 주로 大韓家政學會誌와 家庭管理學會誌에 게재된 論文을 中心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학 분야에서 비교적 미시적 관점으로 分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勿論 標集對象과 測定道具가 一致되지 않고, 時系列的 分析이나 縱段的 研究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이 資料만 가지고 한국 사회의 夫婦문제를 언급한다는 데에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그간의 연구 결과등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문제를 分析하는 범위는 夫婦間的 役割問題와 權力문제등의 外的構造

로서의 문제와 滿足度, 幸福度, 安定性등의 제목으로 研究된 內的구조인 정서적 구조로 大別(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해 보았다.

① 夫婦間的 役割문제에 있어서 役割영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性役割態度는 약간 전통적이며(이형실, 1985), 남편보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 경향이었다(최규련, 1984). 남편의 경우 자녀양육에서 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가족부양 영역에서 다소 근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가족역할의 성별분업을 지지하는 전통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이정연, 1981). 부부간 애정영역에 있어서는 휴일의 외출결정은 부부공동 역할 또는 남편의 역할이며, T.V. 프로그램 선택은 부부공도의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옥선화, 1984). 자녀 양육역할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자녀가 유아기일 때는 자녀양육이 부인의 역할이었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남편의 참여가 증가하여 학교문제결정, 취업문제 결혼등에서는 부부공동역할 또는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이은식, 1975, 옥선화, 1982).

변수별로 고찰해 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부인 또는 부부공동의 역할수행 분야가 증가하고 있었으며(옥선화, 198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가정내의 역할수행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이연주, 1984) 부인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최규련, 1984). 전통적으로 남편역할로 되어 있는 역할에 대하여는 도시에서는 상당부분 부인에게 역할이양이 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옥선화, 1984).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주부가 즉 전업주부가족보다 남편들이 근대적 성역할 태

도를 가지며(이정연, 1983) 부인의 성역할 태도 역시 더욱 근대적이다(이형실, 1985). 또한 취업이 전문적일 때 더욱 근대적인 태도를 보인다(최규련, 1984). 취업주부는 가정내 역할중 어머니역할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역할 평가도는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유영주, 1979, 김명자, 1981).

② 다음으로 부부간의 權力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내 역할에 대하여는 부인의 결정권이 높고, 경제문제나 농사일(제주도)은 남편의 결정권이 높았다(김혜숙, 1982). 가족의 형태별로 볼 때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유형이 부부공동 결정권이 높았고, 가족생활 주기로 볼 때 결혼해서 첫아이 출생 이전까지는 부부공동 결정이 우세하다. 자녀출산과 더불어 유아기까지는 부인결정권이 높고 자녀청년기 이후부터는 부분적으로 남편결정권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만족한 부부일수록 부부공동 결정이 많았고 부부가 지닌 부부역할 규범에 있어서 부계적일 때 남편의 권력이 우세하였고 평등적 규범을 가질 때 부인의 권력이 우세 하였다(김홍은, 1986). 또한 부인의 자원이 증가할 때 부인의 권력증가와 관계가 있었다(김홍은, 1986).

③ 부부간의 만족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가족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비교적 높았고, 부인보다는 남편이 더 만족한 편이었다(조성욱·신효식, 1987).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주기등의 객관적 변수와 가치관, 성역할 태도, 자아실현, 자아개념, 주부의 취업동기의 개인적, 주관적 변수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이것을 綜合적으로 分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태도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가 적을때 즉 이해도 일치도가 높을때, 성역할 태도는 양성성일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정연, 1987). 역할태도가 근대적일때, 자아실현욕구가 근대적일 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취업이 불가피할 때,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임정빈·정혜정, 1986).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된 연구가 많았는데 이것은 이미 연구자가 표집한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중에서 높은 집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연구는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에서 개념토 하여야 할 것이다(例를 들어 未發表된 論文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연구가 있다).

以上の 부부간의 役割문제, 權力문제 滿足度에 관한 論文을 고찰해 본 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보면, 아직도 남편, 부인 다 (1)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2) 男女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가사참여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나 실제 참여도는 낮은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음) 아직도 (3)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정역할을 더욱 간소화 하거나 의식을 간소화 하거나 자녀수를 줄인다 등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더욱이 자녀양육이나 살림역할에 대해 역할평가를 스스로 낮게 갖고 있는 것 등은 (4)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직업을 가졌다하더라도 전통적 아내역할을 다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신전통주의 의식에 묶여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 II. 사회기관 여성단체 상담창구에 나타난 부부문제

사회기관으로는 보건사회부 부녀복지과, 여성개발원, 가정법원, 서울특별시 가정상담소, 여성단체로는 주부클럽 대한어머니의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Y.W.C.A.,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그리고 여자대학교(숙명, 이화, 한양, 명지, 덕성)부설·평생교육원등을 조사해 보았다.

본고에서 가정법원 가정법률상담소, 서울시 가정상담소, 생명의 전화에 나타난 부부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법원에 나타난 우리나라 이혼실태를 보면 1975년 부터 1966년 까지는 한국의 평균이혼율이 0.31이었는데 비하여 10년이 지난 1976년 부터 1976년 까지의 평균이혼율은 0.66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77년 부터 1986년 사이의 평균이혼율은 1.36으로 10년전 보다 다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이후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증가되어 일본의 이혼율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상회하고 있는 사실이 注目할 일이다.

연 도	미 국	일 본	한 국
1980	5.19	1.21	1.16
1981	5.27	1.31	1.35*
1982	5.03	1.38	1.45*
1983	5.03	1.50	1.46

한국 : 84→1.79  
 85→1.84  
 86→1.88

1967년에서 1975년 9년 동안은 일본의 평균이혼율이 0.97이었고 한국의 이혼율이 0.66으로 한국의 이혼율이 훨씬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혼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정의 행위가 전체 청구인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자의 부정행위가 女子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여자 측에서 이혼심판의 청구까지 가지않으려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 율은 실제로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악의의 유기가 21.4%, 존속이 학대 받을 때 13.5%, 본인이 학대 받을 때 4.6%, 3년 이상 생사 불명 5.6% 順이다(가정법원, 1986).

다음으로 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 온 부부문제를 보면 6호 사유(남자 43.8%, 여자 37.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부정이 1위로 남자 20.1%, 여자 10%를 차지하고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順이다.

또한 서울시 가정상담소에 찾아온 부부문제(가정불화 원인)를 보면 역시 배우자의 부정이 23.5%(81년~85년), 29.5%(1987년)로 제 1 위이고, 다음으로 자녀문제 15.8%, 13.8%, 성격 차 14.4%, 13.4%, 친척고부갈등, 폭행·학대(7.7%) 등의 順이다. 성격차나 폭행·학대등도 결국 부부문제이고 보면 가정불화원인은 결국 부부문제가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 전화상담해 오는 사례중에서 총사례의 30% 정도가 부부문제에 대한 호소인데

(여자 79.3%, 남자 20.5%) 부부문제중 가장 많은 문제가 혼외관계이다. 다음으로 불화·갈등, 의처·의부증, 가출, 폭력, 별거, 기타등으로 되어 있다. 혼외관계에 대하여는 여성이 호소해 오는 수가 더 많은데(총 319건 中 여성 268건 남자 51건 1984) 여기서 특기할 것은 여성의 혼외관계는 쉽게 폭로되고 혹시 한두번의 실수라고 남편이 덮어주려 해도 가족 친척들의 반대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고 남성들의 혼외문제는 (1) 아내 몰래 오랫동안 동거해 왔다. (2) 직장등 가까이 있는 미혼여성들과의 관계 (3) 사업상의 일시적 외도 등으로 대별되는 데 많은 경우 오랫동안 은닉될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이혼의 원인이나 상담창구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예외없이 혼외관계 배우자의 부정이 제일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외관계가 문제가 되었는지?

부부생활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혼외관계를 유발하고 또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아직 확실한 정설이 없다고 한다. 결혼생활에서의 불화가 성생활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인지, 성생활의 불만이 결혼생활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인지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Masters와 Johnson(1970)은 일차적으로 성생활의 불만족이 혼외관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쪽에서 훨씬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Ellis(1973)는 혼외관계는 잘못된 결혼의 결과로 생기는 신경증적 갈등의 충동적인 행동화(inrulsive acting-out)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근대의 많은 학자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된다고 했으며 성윤리에 대한 개념의 변화 및 사교나 인간관계의 양상의 변화등이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퇴폐풍조, 유흥업소의 범람등이 무분별한 사교행위를 유발시키고 혼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조장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의 결과로 보여진다.

### III. 부부문제의 綜合

문헌고찰과 상담창구에 나타난 부부문제를 검토해



## 본 결과

① 외형상으로는서구적 가족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내면적 의식구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부장적 전통적 남녀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② 문헌연구에서 계층별 부부문제에 대한 결과가 미흡했지만 대체적으로 中上流층 가족의 부부문제는 정의적관계에 문제가 있고 下流층 가족에서는 경제적 문제에 만족도가 낮았다.

③ 부부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혼외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될 것이라는 잠재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④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가족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뚜렷한 신념, 태도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예를 들어 건전가족이란 화목한 가족, 우애있는 가족,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부부는 외형적으로는 近代의 夫婦形態를 취하고 있지만 內面的으로는 아직도 前近代의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도 볼 수 있다. 前近代의이라 함은 個人性의 確立不足, 自我政體感의 不足, 自我尊重感의 缺如등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內面的 近代化를 거치지 않은 사회·경제적 近代化가 불안정 하듯이 家族에 있어서도 內面的 近代化 없는 家族의 外的 形態上的 近代化는 결국 가족의 불안정성, 빈 조개 껍대기 가족을 낳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무질서하고 비도덕적 사회비리 퇴폐풍조 향락산업등의 범람은 갖가지의 아족 아노미적 문제를 야기시키어 빈조개 껍대기 가족에 부정적 요소, 즉 비도덕적 비윤리적 무정부주의적 이기주의 쾌락주의 등으로 病理的 가족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다 하여 전통가족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는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는 뒤엉키게 만들어 현대인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IV.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 가족복지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① 무엇보다도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가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전국규모의 거시적연구).

가정학 분야에서 그간 연구한 결과들이 가족문제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는 우리모두가 자부할 일이나 한국사회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빈곤가족 저소득층가족 농촌가족 편부·편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공단근로자가족 여성들에게 대한 전국적 차원의 연구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들의 가족문제 연구도 시급한 일이다(여성문화를 이끌어갈 여성의 고급인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가족문제와 가정학내에서의 가족문제의 개념의 차이는 가정학 분야에서의 연구의 사회적 공헌에 막대한 손해요인이 되므로 용어상의 개념정리가 시급하다.

②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층적 연구인 사례연구 면접조사등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③ 문제있는 가족, 병리적 가족연구 뿐만 아니라 건전가족의 모델을 제시하고 건전가족의 특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족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④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교육, 상담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를 시도하여야 한다.

⑤ 특히 가족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의식(목적의식, 가치관) 대한 교육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⑥ 정부·국가 차원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그것은 바야흐로 현대의 가족은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가족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고 건전한 가족에서 건전한 개인이 성장 발달됨을 감안할 때, 작금의 사회적 혼란 비민주적 요소는 가족의 불안정성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고대 로마 에집트와 같은 거대한 사회에 있어서도 가족이 건전하고 강력할 때 사회국가의 번영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상기하여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연구, 캠페인, 운동등을 활발히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C동안 自我實現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주류를 이루었던 미국의 가족연구가 1970년 대에 들어와

otto를 시점으로 하여 Stinnett DeFrain, Sanders 등이 계속해서 건전가족, Strong Family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가족에 묶여 개인의 분화 개인성 확립의 부족이 가족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의 일치 한다는 사실에 본인은 크나큰 의의를 두고 싶다.

즉 현대의 가족이란 개인성과 자아정체감을 무시한 부부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相互작용성 유대감이 결여된 가족 또한 문제가족으로 전락되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란 自我의 확립 자아실현등을 추구하는 個人육구지향적 존재임과 동시에 소속감 상호작용성 유대감을 요구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個人성과 아울러 사회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집단이 가족이고 보면 가족연구의 의의는 더욱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다. 가족에 對한 연구는 거시적 미시적으로 이론적, 실제적(실천적)으로 강화하고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제언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변화되어가는 부부관계, 박금순 편저 한국부인회, 1984.
2. 윤 진,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연세대인문과학, 1988, pp. 83-97.
3. Herbert A. Otto,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eving, 1962, pp. 77-80.
4. Nrik Stinnett and Kathryn H. Sauer,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977, pp. 3-11.
5. Nrik Stinnett, Greg Sanders, Jahn DeFrain and Anne Parkhurst, A Nationwide Study of Families Who perceive Them selves as Strong, Family perspective, 1982, pp. 15-22.
6. Laurence R. Barnhill, Healthy Family Systems, The Family Coordinator, 1979, pp. 94-99.
7. Nick Stinnett, Greg Sanders and John DeFrain, Strong Families, A National Study, 1983, pp. 33-41.
8. Nick Stinnett, Barbara Knaw, John DeFrain and Paul A. Lee, Family Commitment and Marital Need Family perspective, 1982, Satisfaction, No. 16, pp. 157-163.
10. 상담사건 통계(198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9.
11. 부부문제에 관한 논문(41편), 대한가정학회, 1959~1988,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1988.

# 子女問題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이 영 교수

## I. 서 론

「사회변천과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는 「자녀문제」이다. 「자녀문제」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그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변천에 따른 자녀문제는 모든 다른 사회적상황 즉 가족외적요인과 함께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자녀문제도 가족외적변화요인과 가족내적변화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사회변천과 자녀문제」를 연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학자들이 지적해 놓은 자료를 참고로 구체적 자료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함께 생각해 볼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현대 우리사회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

현대 우리사회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대간의 갈등 및 이념과 현실사이의 갈등, 부모의 역할 혼미와 역할상실, 가족내 역할모델 부재현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각각 그 원인과 현상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세대간의 갈등 및 이념과 현실사이의 갈등문제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부모의 의식변화과정 상

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다. 주제강연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오늘날 우리사회는 사회구조상의 변화와 이념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사회구조상,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가족 크기가 감소하고(소규모 가족화), 부부중심의 핵가족은 증가하며, 가족주기가 변화하고(자녀출산기는 줄어들고, 자녀출가후 노부부가 길어지는 등), 가족형태는 다양화(별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등)하는 등, 가족구조가 현대 산업사회에 맞추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의식면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이상적으로 평등주의와 개인의 자아실현에 가치를 두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세대에서는 사회적 이상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적·가족주의적 규범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의 가족은 특히 부모세대는 변화속도가 급격한 사회속에서 외형적구조변화와 내면적의식변화 사이에 괴리감을 안고 있다. 또한 이 괴리감은 이념적수용과 현실적 적용사이에도 매우 커서 이러한 괴리감이 자녀와 관련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동원교수(1986)는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문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를 가족과 가문의 자산이라고 여기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문종의 공동체적 통제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개체화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혈연관계의 폭이 축소되고 공동체적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는 좁은 의미의 부모-자녀간의 제한된 혈연적 유대감으로 축소되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문의 권위보다는 아버지의 권위로 통제하고자 하면서도, 아직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가계를 잇는 자산으로 보는 의

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와 기대를 강요하고 자녀에 대한 간섭이 크며 이것이 과보호현상으로 나타난다.

자녀세대는 개인주의와 민주적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이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와 기대로 인해 심리적압박내지는 저항감을 느껴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역사적변화와 단절을 거치면서 부모 자신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조옥라교수(1986)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변화속도가 급격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일제침략, 해방, 6·25, 그 이후의 정치적상황등의 문화적 비연속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분단사회」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회변화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끼며 「위기적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부모의 역할에서, 그리고 자녀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물질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부모세대는 불안의식속에서 모든것을 물질로써 보상하고자 자녀세대를 물질과잉환경속에서 자라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부모—자녀간의 극도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이기주의적 가족의식현상을 낳기도 한다. 한편, 모든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습관화된 자녀들은 참을성이 부족하여지고, 만일에 욕구가 지연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물질의존적 성격을 갖게되며, 절대적결핍 뿐만 아니라 비교수준에서 오는 상대적 결핍감마저 생겨나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학교제도와 산업구조에의한 부모의 역할혼미와 역할상실이 문제가 된다.

가족형태의 변화, 남녀역할의 변화, 사회적가치기준의 변동등으로 현대생활에 도덕적표준이 없어지고 물질주의적 실리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갈등과 혼미상태에 놓이게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육이 사회적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갖기위해 필사적 노력을 한다. 부모는 학교교육을 받

기위해서는 재래식효도를 요구할 신념이 없고 모든것을 포기하고 입시공부를 강화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학교교육제도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부모와 가족의 교육적역활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교육과 직업들 사회적출세의 수단으로 보기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학업성적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역할 상실이 곧 민주와 평등의식에 기초한 부모—자녀관계로 변화해 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자녀관에 의하면 자녀는 아직도 부모의 소유물이며, 가계를 잇는 자산인 것이다(한·남제, 1979).

네째, 현대사회에서의 직업활동이 부모를 가정으로부터 빼앗아 가정내에 역할모델이 없다.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해외근무, 공무원지방이동근무등 직업적인 이유로 아버지와 별거하는 가족이 많다. 그러므로, 「부친부재」 즉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거의 참여치 못하고 어머니만이 책임을 지는 불균형적 현상이 생겼다. 자녀중에서도 특히 아들의 경우 동일시할 적절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역할모델 부재가 매우 심각하다. 유치원 아동의 그림, 소꿉놀이등에서 반영되는 바와같이 아버지는 가정에서 쉬는 모습만 보여준다. 현대사회에 사는 이들은 아버지는 소외된 채 어머니, 그리고 TV, 여러교육기관으로 전전하면서 자라간다.

그런가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부친부재 뿐 아니라 「부모부재」 가족까지 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지내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생활환경도 다양하며 자녀의 사회화는 부모나 가족보다 학교, 또래, TV등 가족외적기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배울 대상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

### III. 결론 및 대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자녀문제는 가족내 구조변화로 인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가족외적요인, 즉 교육제도, 경제구조, 법률, 역사적상황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들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 보다는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사회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단지 시대마다 사회마다 문제의 양상이 다소 달라질 뿐이다.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가족은 외형적인 구조상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거지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있으나, 가족내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가치관에 혼란이 와있고(재래식 효도를 요구할 신념도 없고, 그렇다고 평등의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모든 교육은 학교에 떠맡기고(입시위주이긴 하지만), 가족의 교육적 기능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자녀들은 가족내에 적절한 역할모델이 없는 채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입시와 출세, 그리고 물질위주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가족이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현실점에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부모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게하기 위한 교육은 평생에 걸쳐 각 부모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예 : 예비부모교육, 출산기부모교육, 자녀가 유아기일 때 부모교육, 자녀출가후 교육등).

② 입시제도를 포함한 현행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타결해야 한다.

③ 자녀교육에 부모의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남성 특점의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남녀가 함께 사회적 역할과 자녀교육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을 가족이기주의에서 탈피시키고 가정이 민주적 평등의식을 학습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예 : 현행 가정교과목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남학생에게도 필수적으로 개설해 줌으로써 부모 준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매스컴과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를 교육하고 재교육한다).

⑤ 약화된 가정의 기능은 학교, 매스컴, 사회등 여러 사회화기관이 상호보충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예 : 탁아시설의 질적향상과 양적확장, 유아교육시설의 질적향상과 양적확장).

## 참 고 문 헌

1. 고병익 : 현대 사회와 가족, 현대 사회와 가족, (제 7 회 복지사회 심포지엄) 서울 : 아산사회 복지재단, 17-27, 1986.
2. 이동원 :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논업, 제27권,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254-257, 1976.
3. 이동원 : 현대 사회의 부모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 창지사, 35-49, 1986.
4. 정희경 : 가정교육(II), 현대 사회와 가족, (제 7 회 복지사회 심포지엄) 서울 : 아산사회 복지재단, 236-246, 1986.
5. 조옥라 : 전통사회의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 창지사, 19-34, 1986.
6. 차경수 : 가정교육(I), 현대 사회와 가족, (제 7 회 복지사회 심포지엄) 서울 : 아산사회 복지재단, 223-235, 1986.
7. 최신덕 : 현대가족, 변천하는 가족관계, 서울 : 한국 부인회 총본부, 1982.
8. 최신덕 : 현대 사회의 가족, 현대 사회와 가족, (제 7 회 복지사회 심포지엄) 서울 : 아산사회 복지재단, 41-54, 1986.
9. 최재석 : 현대 가족 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10. 한남재 : 한국 도시가족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28권, 경북대학교, 161-164, 1979.

# 老人問題

誠信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金 兌 玄 教授

우리 나라는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老人'을 學問的인 主題로 하여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老年學(Gerontology)은 1944年 영국에서 제창되었으며, 1951年 Belgium에서 제 1 회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개최되었다. 그후 1978年 동경에서 개최된 11회 모임에 한국이 참가하여 이에 자극을 받아 1979年 한국노년학회가 발족되었다. 1989年 6월에 Mexico Acapulco에서 제14회 국제노년학회가 개최될 것이다.

노인 문제는 주로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부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의·식·주)를 제공하는 부양이며,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고독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육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이며, 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이러한 부양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여기서는 가족적 측면에서 노인부양 정책을 보고자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다. 첫째, 가족 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둘째 가족 구성원들의 육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노인의 가족 부양 정책에 관한 중요성과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부양자인 기혼여성의 취업율의 증가, 부양자녀수의 감소 및 노인 여성의 증가와 같은 가족 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가족 부양 정책

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둘째, 문화적 변화로 삶의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 개개인의 육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원 모두의 육구를 이행하기 위한 현대 가족의 능력은 이러한 기대 확장의 배경에 대항하여 평가되어야만 한다. 노인의 증가되는 육구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집단이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어 국가와 사회가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표 1>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노인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지만 가족의 증가된 육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 부양 정책은 결국은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완해 주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노인 복지 대책에 따른 범위는 광범하고 다각적일 수 밖에 없으나 노인 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약 3/5, 또 70세 이상에서는 2/3가 여자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표 1> 노인 가구의 형태

동거형태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노인단독세대	20.5	15.1	18.5	23.3
장남부부	39.4	35.3	40.5	41.0
기타아들부부	12.6	11.4	10.5	13.6
미혼자녀, 홀며느리	23.5	31.4	25.4	19.6
딸, 사위	2.8	5.5	3.9	1.3
기 타	1.2	1.2	1.2	1.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의 노인 생활실태, 1985)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 생활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형태는 상호 의존적인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때 남자 노인의 경우 86%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여자 노인은 30%만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 노인 복지의 관점을 여자 노인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할 소지를 보여 준다.

위의 3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가족 부양 정책 방향을 설정해보자 한다. 1960년대 후반 부터 서구 제국의 노인 복지는 물질 일반도 정책에 대한 반성론이 제기되고 동시에 정신적, 정서적 부양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남아서 가족 또는 지역 사회와 전과 다름없이 접촉하며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인 복지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개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서구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후퇴는 高負擔高福祉 (high level funding for high level welfare) 정책이 디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재정적 절감이라는 측면도 노인을 보살 피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가족 또는 지역 사회에 의존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가족 전체를 단위로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강화하고,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가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실 모든 정부의 활동은 직접적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족을 고려의 기본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하여 개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가족에게는 모순되고 단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만일 가족이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가족 부양정책을 통하여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일관성있게 결과를 가져오으로써 이들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myrdal(1968)은 이미 독립되고 의도적인 가족 정책이 없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 즉 가족이라는 분야를 단지 우연이나 재난에 맡겨 놓은 셈이며 그 결과는 무질서하고 때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주의 가치가 지배적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정부가 재

정 지원하는 가족 정책 연구 기관이 설립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가족 유지의 전통을 유지·계승하여 가족이 노인 복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정통적 가치를 지속시키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문제는 가족을 지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경로효친에 대한 별다른 의미의 재정립이나 실천 원칙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로효친을 고양하려 해왔으며 이들 노인 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왔다.

변화하는 현대적 상황속에서의 새로운 의미의 정립과 실천 원칙의 제시없이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고양하려는 시도와 이를 통한 노인 복지의 향상은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로서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노력으로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으며 노인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정책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들은 1960년 이래 경제 성장 일반도의 개발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가족 성원들에 대한 보호 기능의 수행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왔다. 개별 가족의 노인 부양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왔으므로 가족의 부양 기능을 강화시키는 복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노인과 가족의 효과적인 결속을 위해서 제안되는 것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유인 자극(incen-tive)의 활용이다. 유인 자극은 가족이 노인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자발성과 자신감을 주고, 가족 구성원들간의 유대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다. 대안 없이 연약한 노인들, 특히 불구 노인을 가족에 내맡기는 것은 서로간에 비참한 경험을 남게할 수도 있고 죄의식을 기르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간의 효심의 얇은 고무 밴드는 끊어지는 점까지 팽팽해진다. 노인과 가족 유대로 부터 나오는 회생과 결손을 제거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현대적 관념이 나올 수 있다. 경제적 취약성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상을 주는 것, 가족들의 구호 요청에 보다 잘 대응하도록 인적 보안 체

계를 유용하게 하는 것등은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시간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적 보완적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 ① 노부모 부양 수당의 지급

정부는 1987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는 노인 1인당 월 1만 5천원씩의 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친을 모실 경우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수당 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제도를 정부 투자 기관과 민간 기업등에서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처럼 수당을 부양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노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으나 부양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를 달리하게 하고 노인 문제 해결의 우회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가족내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가 있다.

### ② 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면세혜택

정부는 1987년 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 대하여는 연간 소득액에서 36만원을 공제해 주고, 또한 5년 이상 부모를 모신후에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자식이 주택이 아닌 재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 '일정액'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2) 가족간의 정서적 기능 강화 정책

### ① 노인 복지 상담 사업의 활성화

노인 상담은 많은 노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상담분야는 아동, 결혼, 청년, 성인 상담 영역에 비해 다소 무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족 상담이 전개되어 왔으나 가족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은 거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노인 복지 상담제도가 미발달된 상황에서 노인이 실제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아서 노인의 문제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노년기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로 가족과 상의하거나, 혼자해결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상담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김태현, 유은희, 노인복지 상담 제도에 관한 연구, 1981).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 복지 상담제도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정서적, 경제적, 신체, 서비스 및 사회 법률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상담 제도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② 노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강화

역사적 시기상 다른 시점에서 태어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경험을 달리하기 때문에 가치관, 태도, 행동에 있어서 세대차이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족이나 세대간의 갈등은 존재하므로 단지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수준에서 노년학과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과에서 노년학을 공통 과목으로 개설하게 한다. 그리고 중년층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노년학을 개설하여 가족들이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③ 부양자 지지 조직 마련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중년 세대 자신들이 신체적, 사회적 노쇠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노부모에게는 자식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른바 양쪽에서 '협공받는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부양자 조직을 만들어서 부양자들이 노인 부양에 필요한 건강, 영양, 간호, 정서적, 갈등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또한 부양자들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경험 등을 토론하면서 서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④ 노인 자원 봉사자의 활용

대화 상대자가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 상담자가 방문하게 되면 서로 노인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정신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



이 자원 봉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조직적 활동 단체를 마련한다.

### ⑤ 여성 노인의 재혼

성별에 따른 결혼 연령의 차이와 평균수명의 차이 뿐 아니라 재혼할 수 있는 경향이 여자 노인은 사회적, 심리학적, 인구학적 요인이 복합되어 여성의 재혼율은 매우 낮다. 여성의 재혼을 아직도 금기시하는 사회지만 노인 여성의 재혼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노인 생활 상담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의 운영 체계를 정부가 지원해 주어 활성화시킬 수 있다.

## (3) 서비스 부양 기능 강화

### ① 서비스 정보 전달 제도

노인에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노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 지는 서어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모아서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이 노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② 가정 봉사원 제도

노인 보호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가정 봉사원이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③ 더운 음식 배달 서비스

노인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를 부양하는 자녀가 맞벌이 부부일 때 일주일에 두번 정도 더운 음식을 요리하여 노인의 집에 배달해서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족이 노인의 경제적, 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 책임을 전담하도록 맡겨 두고 국가나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은 소홀히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에의 투자나 노인 개개인을 원조하는 서구식 복지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이 속해 있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취업여성과 가사노동문제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 정 우 교수

## I. 서 언

우리나라는 현재 공업화로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확산으로 가정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여성교육기회의 확대로 점차 19세 이하 저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87). 이와같은 기혼취업 여성의 증가현상은 여성의 자아실현욕구에 더하여 남녀평등사상의 확대·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 참여욕구증대·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수요증대·가전제품보급 및 핵가족화와 출산율저하로인한 가사노동시간의 단축·생활향상욕구에 따른 추가수입의 필요성 증대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9.4시간으로 남자의 9.2시간보다 0.2시간 더 근로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노동시간이 길다(노동부, 1985).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약 8~12시간이며(윤복자, 1975; 임정빈, 1981; 이정수, 1984~5; 최필숙, 1986) 기혼취업여성의 평일가사노동시간은 7시간미만이 80%, 7~10시간 20% 정도이고 휴일은 7시간미만 45.9%, 7~10시간 35%, 10시간이상 18.8%(조필교, 1977)로 도리어 휴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직장에서 내내 시달리면서 휴일에조차 쉬지 못하고 밀린 일로 인하여 과중한 가사노동과 역할과다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치고 있다. 이와같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가사노동과 직장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고 두가지 역할에서 오는 갈등(Oakley, 1976)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의 생명유지 및 발전과 자기실현, 더 나아가 가정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은 누군가에 의하여든 계속 경영·관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가사노동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가족개 개인을 배려하는 동시 질적인 측면도 중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취업여성가정의 가사노동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들 가정의 가사노동문제는 이미 취업여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개인이 행하는 노동의 만족여부는 그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고(Keith, D. 1977)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가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만족여부와 수행사항은 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동시에 가정분위기 및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Steidl, R.E., 1975).

## II. 새로운 역할변화의 수용

부부관계는 지배나 복종이 아닌 평등한 관계이어야 한다. 여성은 집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남자는 지배자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부부애와 신뢰에 기초해야하며 각자는 충분히 개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정신적 정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현대 가정의 남편은 여자가 가정밖에서 세상일을 남자와 나누어 하는 것처럼 남자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하여 성가신 일로서가 아니라 애정을 주고 받으며 인생을 함께 즐기며, 서로간의 친교를 위해 함께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야한다. 근래 대학생의 한 조사

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탈피는 가사와 육아 문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의 90%가 가사 및 육아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듯이(동아일보, 1989)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역할개념 즉, 심리적 양성성의 수용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배타적이 아닌 관계에 있으면서 각각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일수도 있고 따라서 부부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도구적, 수단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환언하면 가정내역할에 대하여는 주부가 맡아하면서 가족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역할의 공유 즉 가족은 누구나 시간·기능·적성에 맞추어 가정내 역할을 실천 수행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없이는 취업여성이 가사노동의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서 전혀 헤어날 수 없으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point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역할공유를 위한 편견없는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시킴과 동시에 수행능력습득을 위한 실습교육의 병행이 바람직하다.

### III.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대체성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복지 및 가족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부에 의하여 수행될 때는 무급의 노동이지만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일 뿐 아니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는 '생산적 노동'이다. 이는 타인에게 대체가능한 활동과 타인에게 대체불가능한 활동(비신체적인 가족돌보기, 가정경영)으로 나누며 전자는 타인에게 금전을 지불, 용역의 형태로 위탁이 가능하며 분리성의 특징이 있고 후자는 가족원의 태도나 가족원과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대체로 소비활동과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분리성의 특징을 갖는다(Beutler & Owen, 1980) 그러므로 분리성의 대체가능한 8가지의 가사노동—조리·설거지 및 뒷정리·

시장보기·빨래하기·다림질·가계부기록·청소하기 신체적측면에서의 성인가족 및 자녀보살피기—중에서 가족에게 비교적 영향이 덜 미치는 부분은 그 소요시간과 금전적 가치—참고로 말씀드리면, 1988년 문숙재·정영금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1일 가정생산 가치는 9,941원~13,586원이며 각가정의 주부가 1개월동안 기여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는 최소 298,230~최대 407,580원 즉 평균하여 1일 12,000원 한달에는 약 35만원이고 김애실(1985)의 연구에서는 1개월에 271,933원이다—를 환산하여(김애실, 1985; 문숙재, 정영금, 1988) 타인에게 대체할 경우의 비용과 직업에서의 소득간의 비교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가사노동 대체로 생긴 시간은 대체불가능한 가사노동(독특한 인간특성 및 인간관계포함)에 충분히 투입하므로써 가족과 자신의 발전 및 가족생활의 만족증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IV. 가정생활의 합리화

첫째, 생활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실천한다.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자기가 해야할 일(직업노동·가사노동)과 자신이 하고 싶은일 즉 시간소비의 가치가 가장 높은 일을 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된다(문숙재, 정영금, 1988) 따라서 매일 24시간을 직업노동시간·가사노동시간·취미·가족단란시간등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매주일·매월·매년 해야할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로 한다. 예컨대 취업여성은 직업노동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 월요일에는 집안정리·화요일에는 마른 반찬만들기·수요일에는 세탁·목요일에는 다림질·금요일에는 부엌정리·토요일은 평소 메모해둔 생활용품구매를 하고 일요일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단란이나 외식등으로 직장일과 가정일을 균형있게 계획·배분하므로써 피로가 쌓이지않게 하여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실제로 부부간의 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종류층 맞벌이부부는 일반부부에 비하여 비교적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며 애정표현

도 적극적으로 하고 서로 바쁘니까 늘 긴장하며 또 같이 고생하는데 뭔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 때문인지 결혼한지 20년이 넘는 부부도 권태기를 겪지않고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한국일보, 1988. 10. 23).

둘째, 생활양식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예컨대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구는 입식과 침대로하여 이불을 펴고 개는 잡다한 일을 간소화하며 입식생활을 함으로서 청소의 빈도를 줄이도록 한다. 가족의 식생활만 하더라도 간소화하여 아침식사는 빵, 채소, 우유로, 점심은 직장에서 하도록 하고, 저녁만은 가족이 함께 정성들인 식단을 마련하여 온 가족이 즐거운 기분으로 나누도록 준비한다.

셋째, 가정기기의 활용을 통하여 가사노동시간과 노력을 절감한다. 한 예로, 식사준비를 하면서 세탁기에 세탁을 하므로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도 있다.

넷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적극 도모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시간절약 및 노동절약형 상품 대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체가능한 생활용품의 가격이 적정선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가정에서 큰 부담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간장·된장·고추장 및 각종 저장식품(밀반찬류)·생선이나 과일통조림·각종 김치류·양념한 육류(불고기와 돼지고기류등)·각종 어묵 및 튀김반찬·만두·칼국수류 기타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등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일부가 가정밖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에 의해 대체됨으로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가사노동은 그 특성상 대체가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별가정에서 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서창원, 1983) 또한 가사노동은 특성상 노동 그 자체를 저장해 둘 수 없는 보존불가능성을 가지므로 필요에 따라 매일 반복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점(임기섭, 1979)이 문제이다.

## V. 결 언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부담이되는 가사노동문제는 가족결속도나 안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 가족원인으로서 주부에 의해 이제까지 수행되었던 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게 된다. 부언하면 쉼서비스는 물론 시간상 가정단란을 위한 시간을 나눌 수도 없으며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감소되므로서 가족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주부로서도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가족과의 나눔의 시간감소로 가족결속력의 약화 및 불안정성이 전보다 증대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남편과 가족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부가 사전노력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주부의 직업으로 인한 가정소득의 증가가 가족에게 안정감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주부의 직업노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가사노동에 적극참여하므로서 가족간의 상호이해와 협동심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간에는 수단적·표현적 역할의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역할영역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므로서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되면 이를 토대로 공동 의사결정과 관심분야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비록 취업으로 인한 가사노동시간 부족과 완벽성에서는 뒤지나 가족간의 결속도와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문숙재, 1988)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기혼취업여성의 가사노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감시키므로서 기혼취업여성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역할을 보다 조화있게 수행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정적 자기확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제언한다.

첫째, 사회적 차원으로서는 경제·정치적으로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이들의 교양을 위한 TV프로그램 개발·직장별로는 남녀고용평등법준수강화·질 좋은 탁아 시설의 대량 설치·모성휴가·출퇴근시간 자율조정제도마련·직장별 시간제 고용확대·가사작업별 기능보유자 공급시스템확보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적으로는 가족간 성역할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방안연구 및 직업의식이 투철한 시간제 고

용인 활용방안연구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혼취업여성자신은 ① '가사노동은 주부인 자신만이 책임져야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것. ② 자기 자신의 신체적·시간적·정신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것. ③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쌓인 긴장을 풀도록 할 것.

가족을 위하여는 가사노동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주부의 존재는 그자체로서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주며 주부가 행복하다고 느낄때 가족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직장과 가정의 이중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자신의 주부로서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고 행복한 상황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도록 한다.

## 참 고 문 헌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제 3 권 제 4 호, 1985.  
김은주,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노동부, 「여성과 취업」, 1985.  
동아일보, 1989. 3. 15.  
문순재, 가정생산 :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1988.  
문순재, 정영금, "도시 주부의 가정생산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6 권 2호, 1988.  
문순재, 홍성희,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3호, 1988.

서창원,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16권 2호, 1977.  
윤복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 1975  
이동원, "직업여성의 이중역할"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7집, 1976.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  
임정빈, 김명희,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 권 1호, 1984  
조필교, "가사노동의 의식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지」 (경북대사대) 제19권, 1977.  
최명숙,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한국일보, 1988. 10. 23.  
Beutler, IF & A.J Owen,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E.R.J.*, Vol. 9, No 1, 1980  
Bryant, W.K., "Durables & Wives Employment yet Again". *J.F Consumer Research*, Vol. 15, No. 1, 1988.  
Frank, L.K., "The philosophy of Home Management", AHEA, 1969.  
Keith, D, *Human Behavior at Work*. N.Y.: McGraw Hill, 1977.  
Oakley, A, *Woman's Work*, N.Y.: Random House, 1976.  
O'neil, N, & G. Oneil, *Open Marriage-A New Life style for Couples*, M.Evans Co. 1972.  
Steidl, R.E., *Complexity of Homemaking Tasks*, *H. E.R.J.*, Vol. 4.  
Walker, E.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H.E.*, Vol. 61, No. 8, 1969.